



#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21년 9월 13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2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38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mailto:communications@asaninst.org)

## 아산정책연구원,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아산리포트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9월 13일(월),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강충구 책임연구위원·함건희 선임연구위원의 아산리포트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을 발표했다. 이 리포트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아산연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전반을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결과가 갖는 함의를 제시한다.

먼저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2020년 76.9%로 2011년 이래 70% 이상이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통일 관심도는 2017년 82.3%, 2018년 85.4%, 2019년 82.1%로 2018년 최고치를 기록했다(최저치- 2010년: 52.6%). 한편, 통일이 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2011년 이래 70% 내외였다. 최고치를 기록한 해는 2015년으로 79.2%였다(2017년: 70.8%, 2018년: 66.2%, 2019년: 64.7%, 2020년: 64.4%).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2011년 이래 북한을 ‘우리’ 또는 ‘이웃’으로 본 비율이 절반 내외였다. 이는 2017년 55.8%, 2018년 58.6%, 2019년 56.1%, 2020년 49%를 기록했다. 반대로 북한을 ‘남’ 또는 ‘적(敵)’으로 본 시각은 30% 내외였는데, 2020년 37.2%로 최고치(2011년: 36%)를 경신했다(2017년: 31.9%, 2018년: 30.5%, 2019년: 34%).

남북관계 인식은 2018년을 전후로 변화가 뚜렷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미·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9년 비핵화 회담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한국인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본원 조사에서도 2018년, 63.4%가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부정: 39.6%)했으나 한반도 정세가 반전되면서 2019년, 2020년에는 남북관계 인식이 다시 부정적으로 변했다(부정- 2019년: 73.9%, 2020년: 84.1%).

남북한 간 전쟁 가능성에는 2020년, 57.3%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답은 42.7%였다. 전쟁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연령대별로 엇갈린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비율은 20대에서 54.9%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는 60세 이상이 44.5%였다(40대: 39.5%, 30대: 38%, 50대: 36.6%). 30~50대가 전쟁 위협을 덜 느낀 이유는 북한의 도발을 수차례 겪으면서 도발이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대북 억지에 대해 불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2.3%가 우리 군이 단독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막을 수 있다: 27.7%). 단독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67%가 한국군이 단독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이길 수 있다: 33%). 한국인의 대북 억지 인식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0년 한국인의 94.9%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93.3%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2020년, 69.3%는 독자 핵개발을 지지했다(반대: 30.7%). 2010년(찬성: 55.6%, 반대: 44.5%) 이래 절반 이상이 핵 개발을 지지했으나, 2019~2020년에는 각각 67.1%, 69.3%가 자체 핵무기 개발에 지지를 보냈다.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2012년 이래 높게 지속됐다. '향후', '통일 후'로 나눠 한미동맹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향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답은 90%대로 나타났다(2017년: 95.6%, 2018년: 94.1%, 2019년: 91.9%, 2020년: 95.9%). '통일 후'를 가정해 물었을 때, 이 비율은 80%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했다(2017년: 80%, 2018년: 85.2%, 2019년: 80.4%, 2020년: 86.3%).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는 북한(55.8%)을 꼽았다. 중국이라고 한 응답은 25.9%였다(미국: 6.1%, 러시아: 0.4%). '통일 후'를 가정해 같은 문항에 답하게 했을 때, 중국이 안보위협이 될 것이란 답은 66.7%나 됐다. 일본이 통일 후 안보위협이 될 것이란 비율은 23.1%였다(미국: 8.1%, 러시아: 1.5%).

본원의 2010~2020년 연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던 2018년을 전후로 일시적인 여론 변화가 드러났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은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한국인의 대북·통일 인식이 호전됐던 것으로 해석된다. 제임스 김 박사와 강충구, 함건희 연구원은 여론의 지지가 담보된 정책은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후폭풍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주는 함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0년 아산연례조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유·무선전화 RDD로 모집한 표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으로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  $\pm 2.5\%$  포인트다.

\*조사관련 문의: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 02) 3701-7373, [jjkim@asaninst.org](mailto:jjkim@asaninst.org)

강충구 책임연구위원 02) 3701-7343, [ckkang@asaninst.org](mailto:ckkang@asaninst.org)

함건희 선임연구위원 02) 3701-7406, [hamgeonhee@asaninst.org](mailto:hamgeonhee@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